

학교탐방

대진초등학교

“꿈과 보람을 가꾸는 사랑의 배움터”

김형섭 교장 부임 후 지역 공동체화 ... 도교육청 자율선도학교 지정, 행복한 학교 만들기

‘꿈과 보람을 가꾸는 사랑의 배움터,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대진 어린이.’



김형섭 교장

대진초등학교(교장 김형섭)는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어촌학교이자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새롭게 감행하는 전교생이 80명인 작은 학교다.

대진초등학교의 교육현실은 농업과 어촌이 공존하는 여느 농어촌마을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경제여파의 현실속에서도 공생할 수 있는 원동력은 지난 2009년 새로 부임한 김형섭 교장의 힘이 컸다.

김 교장은 부임한 그해부터 지역주민과의 가교역할 및 학교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인적공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시작으로 명파초등학교(교장 장영수)와 합동으로 미술공연을 열어 문화적 혜택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양강좌를 개최해 지역 특성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강좌 혜택의 기회를 제공했다. 학부모 및 동문회,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학교가 되기 위해 학부모 공개의 날도 운영했다.

이밖에도 체험활동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는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를 마련했다.

대진초교는 대진교육인증제 및 학교방 송부 운영, 특기신장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과 학교 가정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과후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대진초등학교 전경

있는 특색 있는 학교다.

또 강원도교육청 자율선도학교로 지정돼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형섭 교장은 “대진 꿈나무들의 육성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새로운 학교로 거듭나

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학교 뒷편에 위치한 양식장이 폐쇄되면서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며 “최근 사회 이슈인 아동 성폭력의 우려가 있어 행정에서의 도움이 적실하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2>

고성팔경(高城八景) ②천학정(天鶴亭)

기암괴석과 동해가 어우러진 천하절경



보수 전 천학정



현재의 천학정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橋巖里) 177번지(국유림, 5,055평)에 자리하고 있는 천학정은 청간정(淸澗亭)에서 북쪽으로 7번 국도를 따라 4~5분쯤 올라가면 나온다.

마을로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나 있는 소나무 숲 사이로 몇 걸음 들어서면 동해바다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천혜의 기암괴석과 깎아지른 듯 해안 절벽 위에 건립되어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자를 만나게 된다.

정자에 이르면 전면에는 동해바다 위에 작은 바위섬들이 떠 있고, 남쪽으로 봉포항(鳳浦港) 앞에 있는 무로도(無路島)가 보이며, 북쪽으로는 천태만상(千態萬象)의 자연사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능파대(凌波臺)와 문암리(文岩里) 해수욕

장이 있어 직접 바다에 인접한 정자치고는 꽤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정자 주변에는 1백년 이상 된 소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어울려 시원한 바람소리를 만들어 내며 고성팔경 중에 속해 있는 천학정은 특히 송림(松林)과 어울리는 동해의 일출(日出)은 천하절경이라 하겠다.

그리고 월출(月出)을 보는 망월대(望月臺), 두꺼비바위, 코끼리바위, 고래바위, 거북이바위, 자리바위, 봉황새끼바위, 부처형상바위, 신선(神仙)의 손(手)형상바위, 명에 모양의 가도(駕鳥, 혹은 ‘돈대바위’라고 한다) 이러한 형상들이 오랜 세월 속에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동화되어서 자리를 하고 있어 정자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을 벗삼아 왔을 것이다.

정자의 연혁(沿革)을 살펴보면 ‘1931년(辛未年) 3월 상완(上完)에 마을 유지 오봉(五峯)한치용(韓致龍), 양호(良湖)윤태형(尹泰衡), 해은(海隱)최순문(崔舜文), 운사(雲史)김성운(金成運), 국헌(菊軒)황영수(黃永守) 등이 발의하여 정면 2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의 단층으로 건립되었다.

정자의 전면에는 모암산인(茅菴山人)의 ‘천학정(天鶴亭) 현판(懸板)이 게판(揭板)되어 있고, 정자 내(內)에는 한치용(韓致龍)의 기문(記文)과 좌측으로 시판(詩板)이 현재 남아 있다.

오봉의 천학정기문(天鶴亭記文)에 따르면 “맑은 학(鶴)의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들린다”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오봉의 시판에는 칠언절구(七言絕句)가 있는데 ‘땅에 가득 평평하게 펼친 흰 새

의 떼,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생황과 노래를 일으키고, 난간 위에 6폭의 병풍 누가 알까, 신선은 자연스레 학의 수레에 비끼다’고 적고 있다.

정자는 그간에 해풍과 비바람으로 퇴색되고 시설물이 훼손되자 교암리 마을에서 1960년 무렵 보수하였고 고성군에서는 1994년부터 1996년간에 사업비 들여 전체적인 보수 정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 광 섭

- 향토사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